

세분화·전문화한 학술사전 늘고 있다

수요층 늘고 학자층 두터워져... 장기적인 기획과 투자 절실

초가를 서점가에 전문사전들의 '출간'이 잇따라 눈길을 끈다.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윤리학사전》《현대문학 근본개념사전》이 이미 출간됐고, 《미학사전》《철학사전》《정신분석학 용어사전》《정신분석학사전》《성학사전》 등 곧 출간될 사전도 많다. 전문사전은 우리 학문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번역출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전 출간을 통해 어지럽던 번역 용어나 개념들이 통일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차 세분화하는 전문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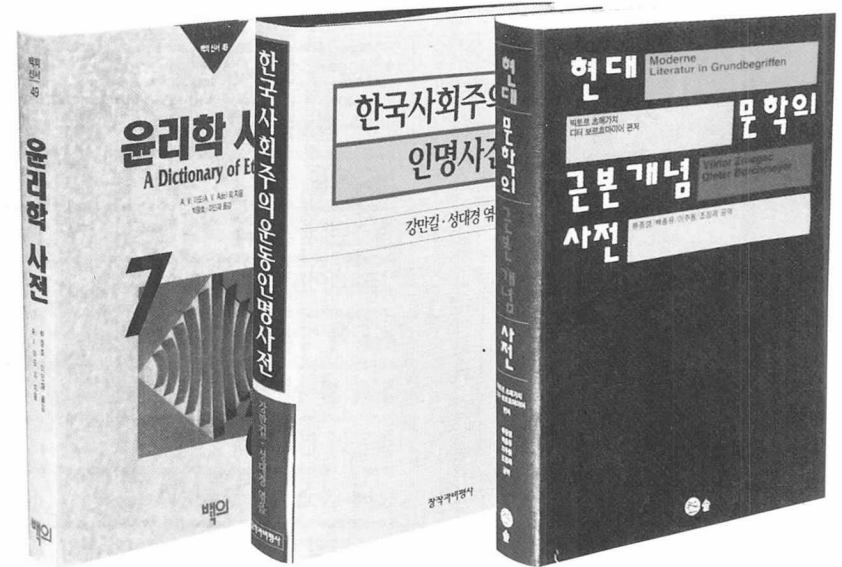
최근 출간된 사전으로는 유일하게 국내 연구자들의 공이 든 사전이 《한국사회주의 운동인명사전》(강만길 외 엮음, 창작과비평)이다. 80년대 후반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진행된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사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이 사전은 50여명의 필자가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일구어낸 결실이다. '사회주의자 인명사전'이 아니라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이라 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개인의 사상에 초점을 두어 선별하기보다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회주의운동사와 관련 맺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윤리학사전》(박장호·이인재 엮음, 백의)은 1990년 소련의 프로그래스 출판사의 영어판본을 번역한 것이다. 윤리학의 핵심 용어들을 표제어로 하고 그 용어들의 연원

최근 전문사전들은 몇가지 경향을 지닌다. 영역은 더욱 세분화하고 내용은 더 전문화하는 것이 첫번째 경향이다.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게 '읽고 이해하는 사전'으로 변해가는 경향도 보인다. 번역서가 태반인 전문사전들의 텍스트 국적 변화도 눈에 띈다.

과 발전과정, 파생된 개념들도 해설한다. 특히 각 용어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상호비교해 균형잡힌 개념적 지식을 획득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현대문학의 근본개념사전》(빅토르 츠메가치·디터 보르흐마이어 엮음/이주동 외 옮김, 숲)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던'이란 개념과 문학의 상호관계다. 잡다하고 포괄적인 개념들을 정리한 종래의 문학사전과는 달리, 시기를 현대에만 한정해 문학의 주요한 근본개념을 60개 항목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각기 전공이 다른 30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해 비교문학적이며, 다루고 있는 내용도 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미



학, 철학, 예술 등 일반문예학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용어 및 개념의 통일 기대

출간을 기다리며 작업중인 사전도 적지 않다. 이미 번역을 끝내고 교정에 들어간 예경출판사의 《미학사전》(볼프하르트 헵크만·콘라드 로티 엮음/김진수·임범재 옮김)은 고전미학과 현대미학의 근본개념들을 348개 표제어로 나누어 해설한다. 미학의 주요문제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룬 이론적인 관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담는다. 예술에 대한 내재적 고찰을 넘어서 예술과 종교, 예술과 학문, 예술과 동시대 문화와의 관계를 기술한다.

예경출판사는 올해 말쯤 고대인도철학

부터 현대분석철학까지 주요 철학자와 그들의 사상을 풀이한 《철학사전》(페터 쿤츠만의 지음/임흥빈 외 옮김)도 펴낼 예정이다.

정신분석학사전 두 권도 준비중이다. 백의출판사에서 진행중인 《정신분석학 용어사전》은 라캉의 제자인 라플랑쉬와 퐁탈리스가 엮은 책으로, 프랑스에서는 정신분석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만큼 널리 알려진 책이다.

번역자 이미경씨는 저자의 제자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나오는 것인 만큼 정신분석학 용어를 통일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음사에서도 《정신분석학사전》을 준비중이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들이 공동집필했고 퐁탈 슈마마가 책임 편집한 것으로, 이화여대 김민환 교수팀이 번역을

왕양명 철학

蔡仁厚 지음/황갑연 옮김/384면/12,000원

유가 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치관의 혼란 혹은 부재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악이나 무질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평가되는 양명 사상을 체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데리다: 데리다 철학의 개론적 이해

H. 키멜레 지음/박상선 옮김/176면/6,000원

"데리다에 의한 연구와 데리다에 관한 연구들의 교차"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리다 사상 입문서. 철학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데리다의 기본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사명

J.G. 피히테 지음/한지경 옮김/208면/8,500원/양장

독일 관념론의 장을 연 철학자로 평가되는 피히테의 원전.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화두로 하여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그리고 신학적 물음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철학적 인간학

G. 해프너 지음/김의수 옮김/256면/8,500원

철학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철학적 인간학" 입문서. 인간 현존재의 기초 차원들로 언어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제시하고, 인간 존재에 고유한 현상으로서의 의식과 의지의 자유를 집중 조명한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말았다.

최근 국내에 일고 있는 인류학, 민속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인지 《성학사전》(강천)이라는 독특한 사전도 출간 예정이다. 빈 성과학연구소가 간행한 것으로 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기획의도. 낙태, 동성애, 정조대, 키스 축제, 콘돔, 초야의 풍습 등 성에 관련된 항목들을 망라하여 해설한다. 사진, 삽화, 만화 등 풍부한 도판도 흥미를 더할 듯하다.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 예정인 전문사전들은 몇가지 경향을 지닌다. 철학에서 미학이나 윤리학으로, 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쏠려져서 볼 수 있듯이 영역은 더 세분화하고 내용은 더 전문화하는 것이 첫번째 경향이다. 사전 하면 두껍고 무거운 것이 먼저 연상되는데, 최근 나온 사전들은 분량 또한 단행본 형태로 줄어든다. 방대한 분량의 사전들은 CD롬으로 대체되기 때문일까.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탓인지 책상에 모셔두고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사전'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까지 번역서가 태반인 전문사전들의 텍스트의 국적의 변화도 눈에 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쏟아져 나왔던 소련 국적 사전들을 상기해보면 최근의 변화는 도드라진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적의 사전들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우리 학문의 관심이 어느 쪽인지를 짐작케 한다.

전문사전 출간이 활기를 띠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표시다. 우리 학문의 세분화·전문화가 전문사전의 필요성을 낳았다는 것. 이밖에도 학자층이 두터워져 사전 번역작업에 힘을 쏟을 여력이 생겼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백의출판사의 유환옥 사장은 출판인들의 의식변화도 한 요인으로 꼽는다.

최근의 학문경향 반영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비도 많이 들고 작업과정도 까다로워서 인내와 여유를 가지지 않고는 해내기 힘든 사전 출간에 출판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장기적인 기획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출판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사전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번역서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근대 이후 우리 학문이 외국 학문에 그 뿌리를 대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서강대 독문과의 이주동 교수는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학문분야의 기초 사전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전편찬작업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자들간의 협력과 조직적인 연대도 필요하다. 상업성에 연연하지 않은 출판사의 장기적인 기획과 투자, 학계 안팎의 재정적인 지원도 절실한 과제다.

— 박남정 기자

출판자료

출판학 연구논문과 문헌비평서 출간

《인쇄출판문화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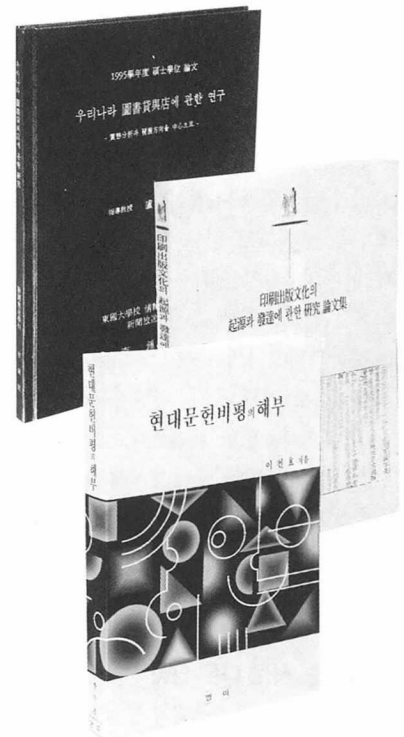
출판학 연구자료 3권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됐다. 《인쇄 출판문화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집》(청주고인쇄박물관), 《우리나라 도서대여점에 관한 연구》와 《현대문헌비평의 해부》(영미)가 그것.

《인쇄 출판문화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 논문집》(한국출판학회 엮음)은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 등 주요나라의 인쇄출판술의 시원과 발달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은 책이다. <고려·조선의 활판인쇄 출판문화 연구> <한국의 근대 인쇄출판문화 연구> <중국 인쇄출판의 연원과 발전> <한국근대의 활판인쇄술> 등 4편의 논문과 근대 활판의 제작 방법을 알려주는 ‘활판술’의 영인판도 부록으로 수록했다.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이종현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우리나라 도서대여점에 관한 연구》는 도서대여점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상적인 출판 시장과 대여점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판유통구조의 이중성이 가져온 문제점을 제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출판시장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대여점이 ‘저작권의 사각지대’라는 점. 대여되는 도서에 저작권 차원의 대여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이 논문의 결론이다.

동래여자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이천호 교수의 《현대문헌비평의 해부》는 문헌비평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보여주는 보기드문



책이다. 서평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나 서지비평, 한국에서 출간되는 서평지들에 대한 비판의 글 등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서평문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진지한 연구태도와 꼼꼼하고 실증적인 비판의 예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서평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도서의 절대비교는 고사하고 도서의 상대비교를 통하여 독자의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한 단계적 독서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는 저자의 지적은 책 내용을 소개하거나 의례적인 평가에 급급한 우리 서평문화를 되돌아보게 한다. — 박남정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 신문: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사: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N 외
- 컴퓨터: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션: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타: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